

주요 OECD 국가의 건강증진정책 영향분석

최윤정, 이영호,¹⁾ 배성일,²⁾ 강민선,³⁾ 고윤성⁴⁾

건강보험심사평가원,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¹⁾, 국민건강보험공단²⁾,

심평원³⁾,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⁴⁾

1. 연구문제 및 목적

- 건강증진정책의 효과적 실행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나 각국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명시적으로 측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
 - 건강증진의 결과는 이상적으로는 완전한 건강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라 할 것임
 - 정책효과 평가하여, 향후 정책사업 분야를 선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
 - 평가과정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음: 첫째, 건강증진 정의와 범위 설정문제, 둘째, 건강증진의 효과인 건강결과(health outcome)에 대한 대리변수의 대표성
 - 즉, 건강증진 및 건강결과를 대변하는 적절한 변수를 선정해야 정책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해야함

- 본 연구에서는 OECD 보건데이터(Health Data)를 이용하여 주요 선진국의 건강증진정책의 효과적 실행에 대한 건강결과를 측정해 보고자 함
 - 최근 선진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세부적 경향분석의 필요성 제기
 -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을 제시함
 - 또한, 정책 및 연구 등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

- 본 연구는 건강증진정책의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이 주요 OECD 국가의 조기사망과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통합된 횡단면 시계열분석을 실시하고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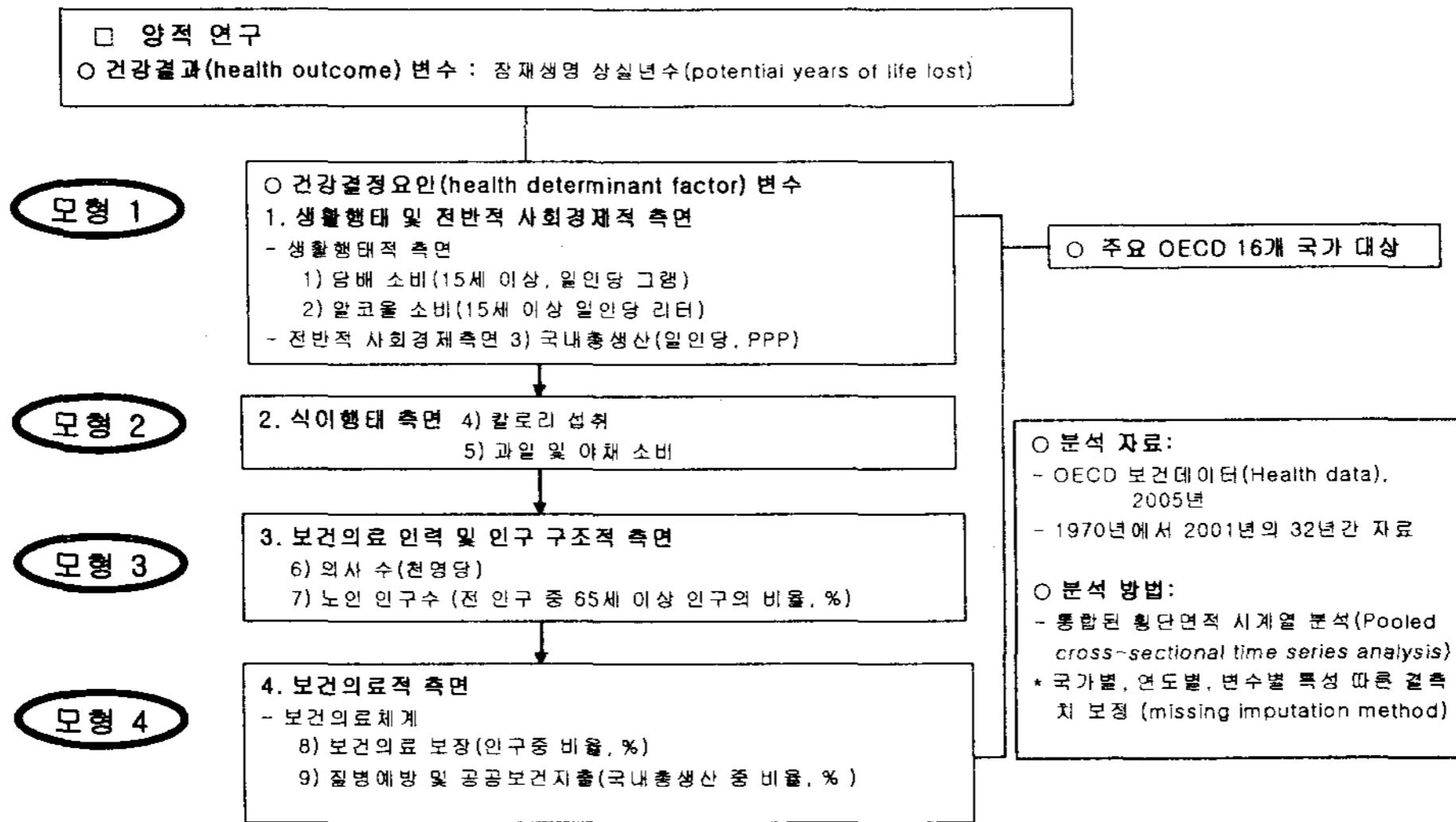
함

- 첫째, 주요 OECD 국가의 건강증진에 대한 시기별 경향을 분석
- 둘째, 건강증진과 관련된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
- 셋째, 건강증진정책이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4가지 모형을 적용하여 통합적 횡단면 시계열 분석 실시

2. 연구방법

- 주요 OECD 국가 건강증진 관련 변수의 시기에 따른 경향을 살펴보고자함
 - 상관분석 및 건강증진정책이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함
 - 1970~2001년까지 총 32년간의 2005년 OECD 보건데이터 자료
 - 종속변수로 건강결과로 건강증진정책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잠재생명 상실년수(PYLL, Potential Years of Life Lost)를 선정함
 - 대상 국가는 총 16개국(미국, 영국, 일본, 호주, 캐나다, 프랑스, 독일, 스웨덴, 스위스, 오스트리아, 벨기에, 덴마크, 아이슬란드, 뉴질랜드, 네덜란드, 노르웨이 등)
 - 이들 국가와 시기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통합적 횡단면 시계열 분석(pooled cross sectional time-series regression analysis) 실시
 - 건강증진정책은 몇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 모형을 구성
 - 건강증진정책을 건강결정요인(health determinant factors)측면을 반영하여 모형 4개로 구체화 함

건강증진정책이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



3. 연구결과

□ 경향분석(Trend analysis) 및 상관분석(Correlation analysis)을 실시함

- 최종적으로 통합적 횡단면 시계열 분석으로 건강증진정책이 건강결과(잠재생명 상실년수)에 미치는 요인분석(남녀 모두, 남녀 구분)
 - 종합하면 생활행태측면의 경우, 알코올은 모형 1과 2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모형 3 이후에서는 방향성은 같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담배 소비는 모형 4개 모두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임
 - 식이행태적인 측면의 열량과 과일 및 채소 소비에서는 모형 2에서는 모두 유의하였으며 모형 3에서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모형 4에서는 열량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모두 방향성은 같음
 - 모형 3의 의사수와 노인인구 비율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모형 4에서는 노인인구만이 유의하였고 방향성은 같았음.
 - 보건의료적 측면의 보건의료보장, 예방과 공중보건지출에서 보건의료보장만이 유의한 결과 보임
 - 모형 적합성을 나타내는 F 값이 모두 유의하였음

□ 건강증진정책이 건강결과에 미치는 요인분석(남자와 여자)

- 남녀 모두의 경우, 대부분 모형에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본 분석에서 모형 4의 열량섭취는 방향성은 같으나 유의하지는 않음
- 남녀 및 남자만 분석한 결과와 비슷하였으나, 여자인 경우는 모형 2에서 담배 소비의 경우 방향성은 이전의 연구와 같으나 유의하지 않음

4. 결론

□ 본 연구는 제한점을 갖으나 연구결과는 건강증진정책의 효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

- 현재 보건의료체계에서 건강증진정책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 그 필요성과 성과 측정에 대한 관심과 동기유발
- 건강증진정책의 요인분석과 더불어 우선순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확보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정책 자료가 될 것임
- 분석결과 전반적인 경제측면과 함께, 건강증진정책 측면에서 담배, 알코올, 영양 등이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음
- 전반적 경제의 영향은 건강증진정책 측면의 변수보다 더욱 영향력이 컸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제수준 향상이 보건의료부분의 투자 확대를 가져오며 최종적으로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
- 실제 우리나라는 이미 담배사업은 정책효과를 보고 있으나 알코올, 영양 부분의 정책사업은 아직까지는 가시적이지 않음
- 언급된 3가지 주제는 선진국의 사례로 효과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우리나라 우선순위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임